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금리 인상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Bloomberg: 미 예산 적자, 이자 비용 때문에 8천2백80억불 상회

[미국 금융]

- WSJ: 미은행 당국, 새로운 운영 복원 요건 검토중

[미국 생활]

- NYT: 팬데믹 이후 많은 미국인들의 삶 바뀌어
- CNBC: 미 젊은이들의 반, “경제적으로 못 살고 있다”고 생각

[주택]

- Bloomberg: 30년 모기지율 7% 미만... 주택 구입 자극

[물류]

- WSJ: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 부두 노동자들 협상 진행 중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무역 개편이 세계화에 영향 주지 않는다

[전기차]

- CNBC: EV 낙관론은 끝 ... 자동차 제조업체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Dollar Tree, 약 1천여개 매장 폐쇄 및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
- CNN Business: Boeing, 매출 동결 풀렸으나 ... 여전히 정상치 하회
- CNBC: 항공사 CEO들, “Boeing Max 위기로 항공편 감축 및 고용 중단”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It's a Higher-for-Longer World for Rates, and That's OK

미 금리 인상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화요일 물가 보고서에서 물가가 2개월 연달아 당초 예상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은 1월 CPI가 발표되기 전에 연준이 연말까지 현재 수준보다 금리를 0.25% 포인트 이상 낮출 확률을 81%로 예상했다. 이는 최소 0.25% 포인트 인하를 의미한다.
- 이후 해당 확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지난 회의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려 하는 예상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 이는 올해 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업의 장비 수요와 같은 요인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등 경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US Budget Gap Hits \$828 Billion in Five Months on Interest Costs

미 예산 적자, 이자 비용 때문에 8천2백80억불 상회

- 2월에 이자 비용 상승 때문에 미 예산 적자가 더 벌어져 회계연도 첫 5개월 만에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 적자가 8천2백8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누적 부족액은 18%나 증가했으며 2월만의 부족액이 무려 2천9백60억달러에 달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U.S. Bank Regulators Weigh New Operational Resilience Requirements

미은행 당국, 새로운 운영 복원 요건 검토중

- 은행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악성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금융 당국은 큰 은행들이 운영 중단 사태를 견딜 수 있도록 새로운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미 통화감독권 대행인 Michael Hsu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익숙한 유동성 문제와는 별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의 복원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WSJ 기사

[미국 생활]

NYT: Four Years On, Covid Has Reshaped Life for Many Americans

팬데믹 이후 많은 미국인의 삶 바뀌어

- 일부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일자리 스타일 때문에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웃들과 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 또 일부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사회성도 줄어들고, '인파'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홈스쿨링이 중단되지

않은 가구도 많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코비드로 사망한 가족과 친척을 애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 한편, 코비드에서 살아남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근육통, 인지력 저하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파의 고통을 겪고 있다.

NYT 기사

CNBC: Nearly half of young adults have ‘money dysmorphia,’ survey finds. Here are the symptoms

미 젊은이들의 반, “경제적으로 못 살고 있다”고 생각

-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국인 젊은이가 상대적으로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재정 혐오주의(money dysmorphia)’ 현상이다.
- 특히 SNS가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의식은 자기 외모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정적인 안정과 경제적 지위에도 여파를 주고 있다.

CNBC 기사

[주택]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Drops Below 7%, Spurring Home Purchase

30년 모기지율 7% 미만... 주택 구입 자극

- 미 모기지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7% 미만으로 후퇴해 주택 구입 신청을 늘리고 있다.
- 30년 고정 모기지는 지난 3월 8일 끝나는 주에 18베이시스 포인트 줄어, 3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확하게는 6.84%라고 모기지 은행협회가 밝혔다.
- 이 협회의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 건수는 4.7% 증가해 지난 4주간 최고치인 147.7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East Coast, Gulf Coast Dockworker Talks Are Starting Under Threat of a Strike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 부두 노동자들 협상 진행 중

-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 부두 노조가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9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계약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운 화사와 항만 고용주를 상대로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메인주에서 텍사스까지 항구에서 일하는 4만5천명 이상의 근로 노동조합의 책임자는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안 전역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 17일까지 지역 지부에 고용주와의 지역 업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rade Reshapes Not Rewinds the Reach of Globalization, Report Says

무역 개편이 세계화에 영향 주지 않는다

-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비동조화 및 미중 관계의 더딘 해빙을 제외하면 세계화는 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뉴욕대 스톤경영대학원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2024년 판 DHL 글로벌 연결성 보고서의 결론 중 하나.
- 해당 보고서는 두 최대 경제 대국 간의 교역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나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들이 라이벌 초강대국 및 그 동맹국과의 교류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지정학적으로 정렬된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무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CNBC: EV euphoria is dead. Automakers trumpet consumer choice for U.S. car shoppers

EV 낙관론은 끝 ... 자동차 제조업체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 몇 해 동안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낙관론(EV euphoria)에 빠져 있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에 대한 낙관적인 판매 전망 및 전기차 성장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던 것.
- 하지만 현재 과대광고는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들은 다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는 Ford Motor, General Motors, Mercedes-Benz, Volkswagen 등이 전기 자동차 계획을 축소하거나 미루고 있다.
- 2023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 55%를 차지한 Tesla조차 “현저히 낮은” 성장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제조사 중 어느 곳도 장기 목표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목표와 관련된 메시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기

업 관계자들은 향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 글로벌 배출 가스 규제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Dollar Tree to Close About 1,000 Stores, Books Over \$2 Billion in Charges

Dollar Tree, 약 1천여개 매장 폐쇄 및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

- 달러트리의 4분기 수익은 기업의 매장 포트폴리오 검토와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비용으로 인해 전액 손실됐다. 해당 기업은 향후 몇 년 동안 약 1천 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 해당 기업은 2월 3일로 끝난 지난 3개월 동안 17억1천1백만 달러(주당 7.85달러)의 손실을 보고했다. 이는 1년 전 4억5천2백20만 달러(주당 2.04달러)의 이익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
- 해당 기업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9% 이상 하락하며 다른 할인 소매업체의 주가에도 부담을 줬다. Dollar General와 Five Below는 3% 정도 하락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Boeing sales unfreeze but they're still well below normal

Boeing, 매출 동결 풀렸으나 ... 여전히 정상치 하회

- 보잉은 2월에 매출이 소폭 반등했다고 보고했다.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도어 플러그 사고로 인해 주문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이다.
- 해당 업체는 한 달간 15대의 상용 제트기 주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1월에 단 3대 주문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반등한 수치이다.
- 하지만 희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잉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Southwest 항공이 화요일 보잉으로부터의 납품이 올해 계획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기 때문.

CNN Business 기사

CNBC: Boeing Max crisis forces airlines to cut flights, pause hiring, CEOs say

항공사 CEO들, "Boeing Max 위기로 항공편 감축 및 고용 중단"

- 보잉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항공사들이 성장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CEO들이 언급했다.

- 이러한 지적은 보잉의 상위 구매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품질 관리 문제, 느린 생산량 증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새 항공기 인증 등, 보잉의 문제로 인한 파급력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드러낸다.
- Southwest, Alaska, 그리고 United는 그들이 늦게 도착한 항공기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보잉은 다수의 품질 관리 문제 이후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예상보다 높은 美 물가지표에도 6월 금리인하 기대는 '여전'**다음주 FOMC서 나올 '올해 금리인하 폭 전망' 주목..."3회 혹은 2회"**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6월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고수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미국 CPI 발표 후에도 6월 기준금리가 현재의 5.25~5.50%보다 낮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69.8%로 과반이다.

3월과 5월 금리 동결 전망은 각각 99.0%와 88.9%로, 시장에서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설에 계속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